

##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영어교육 실태와 어려움

조혜영\* 김미경\*\* 이문옥\*\*\*

### Realities and Difficulties of Englis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Jo, Hye Young Kim, Mee Kyoung Lee, Moon Ok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와 어려움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201명이며, 영어교육의 실태에 대한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만 3세 이전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교육을 시키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같은 또래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한 도움제공은 10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유아 혼자 복습을 하게하거나, 숙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때의 어려움은 비용부담, 정보부족, 영어교육을 시킬 시간부족, 불만족스러운 영어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한 달 영어교육비용은 3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영어교육을 위한 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유아영어교육의 실태와 어려움

\* 제1저자: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molee@sungshin.ac.kr

## I. 서론

현대사회는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사회의 도래는 세계화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정치, 문화, 교육적 차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영어는 국제 공통어로서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보 공유가 원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의 80%가 영어이며(최신영, 2002),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안은숙, 김연하, 2009).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아동의 언어적 발달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 교과목으로 도입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전국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 694개원, 사립유치원 1,020개원의 총 1,714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 유치원의 50.4%, 사립유치원의 75.8%가 영어교육을 특별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학부모들도 자녀의 특별활동 과목으로 영어를 선호하고 있었다(김은영, 조혜주, 김경미, 2010). 또한, 2009년 우리나라의 전체 보육 시설의 10%를 표본 추출한 전국 보육실태 조사에서 총 3,131개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실태를 알아본 결과 95.4%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인지 영역, 예체능 영역, 외국어 영역 등의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는 61.8%로 나타나 과목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다(서문희 등, 2011). 이와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어교육 실태와 학부모들의 조기영어교육 선호현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유아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유아가 2000년에는 6명에 불과하였지만, 2012년에는 40명으로 증가하였다(통일부, 2013b). 0-9세 아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입국한 아동들의 수가 999명으로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4%를 차지(통일부, 2013a)할 정도로 높은 것은 가족단위로 탈북 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경우(최대현, 이인수, 김현아, 2007; 홍주은, 2003)가 많고, 성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남한에 입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이윤진, 이정림, 김경미, 2012).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이 아닌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이다(조혜영, 권정윤, 2013).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단순히 언어의 소통이 자유롭다고 예상하였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억양, 생소한 단어, 외래어의 사용 등으로 인한 이질적 환경에 의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정경일, 2002).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자녀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 여기고 있으며(조혜영, 권정윤, 2013),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교육은 입학과 취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정세론, 임현우, 2009) 이러한 문화의 괴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오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정착하지만, 낯선 환경과 이질적인 문화로 인하여 혼란을 경험한다(조영아, 전우택, 2005). 특히,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유아교육과정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조혜영, 권정윤, 2013; 홍주은, 2003). 남한의 경우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만 3-5세 누리과정’에 의거하여 정규시간에는 영어를 비롯한 특성화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주로 방과 후와 같은 정규과정 시간 외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제1외국어인 러시아어보다 영어를 강조하여 중학교부터 영어를 주 교과목으로 지정하였고, 2008년에는 소학교(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당 1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소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한 혁명 유자녀, 영웅 칭호 영예군인 및 수여자 가정의 자녀 등 특수한 신분을 지닌 자만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주로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심어주는 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인 어휘, 셈하기 등의 지적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정태근, 1994; 최영숙, 2008에서 재인용;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에서의 유아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영어에 대한 낯설음과 무지함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의 외래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박성재, 김화순, 성재민, 반정호, 김선경, 2011)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정착하는 단계부터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유아기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김미정, 이경남, 2011;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영어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

칠 수 있다(오사라, 2008). 그리고 북한에서는 영어습득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이 미비하고, 교사 중심의 영어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이루지, 2007) 회화 위주의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 남한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들이 낯설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영어로 된 용어가 많아 이해가 되지 않았다.”(박성재 외, 2011, p.56)라는 면담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영어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북한에서 영어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간판, 상품명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영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환경을 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정경일, 2002).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기영어교육을 받는 유아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송정, 양정선, 차성현, 정연주, 2011).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이들의 성장발달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민진, 2012; 우남희, 2007),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김경철, 홍정선, 2002; 양옥승, 김진영, 김현희, 김영실, 2001; 조미영, 이문옥, 2009), 영아영어교육 실태 및 요구와 관련된 연구(천희영, 서현아, 좌승화, 배미숙, 201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타당성 연구(마송희, 2008) 등 조기영어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에 대하여 연구한 경우는 드물며(정세론, 임현우, 2009) 주로 자녀 양육에서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주은(2003)은 북한이탈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자녀 양육으로 겪게 되는 경험과 어려움을 살펴보았는데, 자녀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용하는 북한 특유의 말투로 인하여 이들의 자녀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공부하는 교재에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공부를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혜영과 권정윤(2013)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8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남한과 북한에서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을 비교분석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남한 어머니와 상이한 말투, 억양, 외래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영어와 순수한 우리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교육적 지원을 받길 원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오사라(2008)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현황을 연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어교육 경험과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영어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영어를 처음 배운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영어를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1:1 영어 학습, 정규수업이외에 보충수업, 개인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한 학습을 받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경일(2002)은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 실태를 알아보았는데, 조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75.9%가 영어사용에 '적응이 안 되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은 영어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외래어 남용과 외래어 표기법 및 로마자표기법의 혼란, 북한 영어교육의 낙후성, 외래어표기 간판 및 상표 등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남한과 북한의 영어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남은주, 2009; 박약우, 김진철, 고경석, 박기화, 정국진, 2000; 이루지, 2007; 이소영, 2012)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영어교과서 비교를 통해 실제적인 회화위주의 영어교육이 강조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영어교육을 통해 공산주의 이념을 강조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 공산주의 사상 등의 인간으로 개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영어교육에 대한 접근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유아와 아동의 수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 영어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어교육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녀의 영어교육과 관련한 고충을 이해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영어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단체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1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개인적인 노출에 대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배부한 설문지를 친분 관계가 많은 예비 연구 참여자인 A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연구대상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되어 분석 자료로서 적당하지 않은 9부를 제외한 201부(95.7%)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01)

연구대상	구분	n	%
연령	30세 이하	10	5.0
	31세 이상-40세 이하	156	77.6
	41세 이상	35	17.4
학력	고졸 이하	171	85.1
	전문대졸	24	11.9
	대졸 이상	6	3.0
어머니 거주지	동북생활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광진구)	69	34.3
	서북생활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10	5.0
	도심권 (중구, 종로구, 용산구)	8	4.0
	서남생활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07	53.2
거주기간	동남생활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7	3.5
	60개월 이하	68	33.8
	61개월 이상-120개월 이하	124	61.7
성별	121개월 이상	9	4.5
	남아	88	43.8
유아 연령	여아	113	56.2
	만 3세	70	34.8
	만 4세	74	36.8
	만 5세	57	28.4
출생순위	첫째	98	48.8
	둘째	90	44.8
	셋째 이상	13	6.5

주: 거주지는 서울특별시(2006).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전략보고서. p.31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영어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남한에서 영어교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 중에서 면담이 가능한 7명의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인 최대편차(maximum variation)를 이용(Creswell, 2005; Creswell, 2012에서 재인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에 응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면담대상	연령	남한거주기간 및 지역	자녀연령	영어(공)교육경험	영어(사)교육경험
준이어머니	47	180개월 /서북생활권	만 5세	유치원	영어학원/학습지/테이프
민옥어머니	47	120개월 /서북생활권	만 5세	어린이집	영어학습지/테이프
혁재어머니	45	148개월 /서북생활권	만 5세	유치원	영어학원/학습지/테이프
동훈어머니	37	96개월 /서남생활권	만 3세	어린이집	영어학원
재욱어머니	44	36개월 /서남생활권	만 4세	어린이집	북한이탈주민 관련 센터
수영어머니	32	24개월 /서북생활권	만 3세	유치원	없음
상진어머니	41	120개월 /서남생활권	만 3세	어린이집	없음

주: 연구 참여자는 모두 가명으로 하였음.

## 2. 연구도구

### 1) 설문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와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연희(2009), 라명희(2008)가 사용한 부모용 설문지를 이미화(2011)가 수정·보완한 설문지와 김은아(1995), 노승희(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5명에게 총 3회에 걸쳐 설문 내용을 검토 받았으며, 유아교육 전문가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구조와 단어 선정, 특성 등을 고려한 후, 본 연구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문항의 구성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영어교육 실시현황 및 동기’(4문항),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영어교육 실시기관 및 적절한 교육방법’(2문항),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영어교육 시간 및 횟수(개수)’(2문항),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영어교육지도’(4문항),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2문항),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때의 어려움’(2문항)이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영어교육지원 실태와 어려움에 관한 설문 문항

문항구성	구성내용	문항 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영어교육 실시현황 및 동기	자녀의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 자녀의 영어교육 시작 시기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게 된 동기 자녀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	4문항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영어교육 실시기관 및 적절한 교육방법	자녀가 다니고 있는 영어교육기관의 유형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절한 영어교육방법	2문항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영어교육 시간 및 횟수(개수)	학원, 학습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의 영어교육 시간(하루) 영어교육의 주당 횟수 및 개수	2문항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영어교육지도	가정에서 자녀의 영어학습 상태 확인 방법 가정에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영어학습 방법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 영어공부의 도움 여부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 영어공부의 도움 시간	4문항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	영어관련기관에서의 학습내용에 대한 질문 여부 자녀의 영어수준에 대한 관심	2문항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때의 어려움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자녀의 한 달 영어교육 비용 및 가계에 주는 부담감	2문항

## 2) 심층면담 질문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자녀 영어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녀의 영어교육 경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면담은 자녀의 영어교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중점을 두어 ‘자녀의 영어교육이 어려운 이유’, ‘자녀의 영어교육에 지출되는 비용’, ‘자녀의 영어교육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 등을 기초로 하여 면담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은 연구 참여자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영어교육의 의미’,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영어교육의 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한 방법’, ‘자녀의 영어교육과 남한 거주기간과의 상관’ 등 보다 폭 넓은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연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단체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단체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어머니들 가운데 간단한 면담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고,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2013년 3월 9일, 16일, 23일 3회에 걸쳐 영어교육의 실태와 관련된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 단어선택, 시간 소요 등 설문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였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수정한 설문지는 2013년 4월 10일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다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설문문항을 완성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면담을 위하여 2013년 3월 12일, 30일 2회에 걸쳐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거주 기간과 거주 지역에 따른 영어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를 고려하여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 2) 본 연구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의 문자홍보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어머니들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며,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013년 5월 23일까지 배포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응답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은 2013년 4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2주 동안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개별면담은 각 1-3회씩 총 16회 실시하였고, 집단면담은 3회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에 1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며, 면담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였고,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북한에서의 영어교육 경험과 북한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비면담자로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심층적인 면담 내용을 도출하였다.

#### 4. 자료분석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일반적 배경과 이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와 %를 알아보았다.

심층면담은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으로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한 후, 녹음된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다음으로 석사이상의 유아교육전문가 3명이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한 비용과 시간’,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영어교육시간’, ‘자녀의 영어교육 시 어려움’, ‘자녀의 영어교육과 관련한 불편함’,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때, 전사된 내용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해석하는 단계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이들 요소의 순환관계를 참고하여 주제에 따른 하위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용어 사용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에게 보여 주어 내부자에 의한 검증(Lincoln & Guba, 1985)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영어교육 실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교육 실시현황 및 동기’, ‘영어교육 실시기관 및 적절한 교육방법’, ‘영어교육 시간 및 횟수(개수)’, ‘가정에서의 영어교육지도’,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영어교육 실시현황 및 동기

<표 4>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남한사회에서 영어교육을 받았는지의 유무에 대한 문항이며,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201명 중에서 192명(95.5%)이었다.

<표 4> 자녀의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

(N=201)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예	192	95.5
아니오	9	4.5

자녀가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192명의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어교육 시작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는 ‘만 3세’가 73명(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만 2세’ 42명(21.9%), ‘만 1세’ 35명(18.2%), ‘만 4세’ 31명(16.1%), ‘만 5세’ 11명(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자녀의 영어교육 시작 시기 (N=192)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만 1세	35	18.2
만 2세	42	21.9
만 3세	73	38.0
만 4세	31	16.1
만 5세	11	5.7

<표 6>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운데 영어교육을 경험한 유아의 어머니 192명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게 된 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게 된 동기에 대해 ‘같은 또래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 87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찍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 35명(18.2%), ‘유아교육기관의 방침이므로’가 30명(15.6%),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권유로’가 21명(10.9%)으로 나타났다.

<표 6>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게 된 동기 (N=192)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같은 또래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	87	45.3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권유로	21	10.9
유아 자신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	19	9.9
일찍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	35	18.2
유아교육기관의 방침이므로	30	15.6

<표 7>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중에서 영어교육을 받은 19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자녀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는 ‘보통이다.’가 127명(66.1%), 그 다음으로 ‘재미있어한다.’ 46명(24.0%), ‘재미없어한다.’ 19명(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자녀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

(N=192)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재미있어한다.	46	24.0
보통이다.	127	66.1
재미없어한다.	19	9.9

### 2)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영어교육 실시기관 및 적절한 교육방법

<표 8>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영어교육 실시기관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며,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이 154명(7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학습지/문제집’ 30명(14.5%), ‘영어학원’ 17명(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자녀가 다니고 있는 영어교육기관의 유형

(N=206)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유치원/어린이집	154	74.7
영어학원	17	8.2
방문학습지/문제집	30	14.5
과외지도	6	2.9

주: 다중응답 문항이므로 사례수가 맞지 않음.

<표 9>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생각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절한 영어 교육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노래’가 67명(33.5%), ‘대화방법’이 66명(33.0%), ‘녹음/비디오테이프’가 49명(24.5%)으로 나타났다.

<표 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절한 영어교육방법

(N=200)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대화방법	66	33.0
노래	67	33.5
연극	6	3.0
녹음/비디오테이프	49	24.5

### 3)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영어교육 시간 및 횟수(개수)

<표 10>은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하루에 경험하는 학원, 학습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총 영어교육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10분 미만’이 71명(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10

분 이상-20분 미만' 57명(28.9%), '20분 이상-30분 미만' 36명(1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원, 학습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의 영어교육 시간(하루)

(N=197)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10분 미만	71	36.0
10분 이상-20분 미만	57	28.9
20분 이상-30분 미만	36	18.3
30분 이상-40분 미만	26	13.2
40분 이상	7	3.6

<표 11>은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주당 영어교육의 횟수에 대한 내용으로 '주 1회'가 107명(5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 2회' 45명(23.4%), '주 3회' 22명(11.5%), '주 4회' 12명(6.3%), '매일' 6명(3.1%)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가 현재 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주당 개수는 '1가지'가 162명(84.4%)으로 가장 많았고, '2가지' 25명(13.0%), '3가지' 4명(2.1%), '4가지' 1명(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영어교육의 횟수는 평균 1.78회(SD 1.077)이며, 개수는 평균 1.19개(SD .476)로 나타났다.

<표 11> 영어교육의 주당 횟수 및 개수

(N=192)

주당 횟수	빈도	퍼센트(%)	주당 개수	빈도	퍼센트(%)
주 1회	107	55.7	1가지	162	84.4
주 2회	45	23.4	2가지	25	13.0
주 3회	22	11.5	3가지	4	2.1
주 4회	12	6.3	4가지	1	.5
매일	6	3.1			

#### 4)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영어교육지도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가정에서 영어를 지도할 때, 영어학습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배운 내용을 아이 혼자 해보라고 시켜보는 편'이 60명(28.8%), '단어 위주로 물어봄'이 57명(27.4%), '놀면서 자연스럽게 확인'이 52명(25.0%), '잘하겠지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이 39명(18.6%)으로 나타났다.

<표 12> 가정에서 자녀의 영어학습 상태 확인 방법 (N=208)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배운 내용을 아이 혼자 해보라고 시켜보는 편	60	28.8
단어 위주로 물어봄	57	27.4
놀면서 자연스럽게 확인	52	25.0
잘하겠지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음	39	18.6

주: 다중응답 문항이므로 사례수가 맞지 않음.

<표 13>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영어학습 방법에 대한 것으로 ‘숙제만을 강조한다.’가 59명(30.4%), ‘흥미유지에 관심을 기울인다.’가 54명(27.8%), ‘단어와 문장 말하기 등을 강조한다.’가 43명(22.2%), ‘집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가 38명(19.6%)으로 나타났다.

<표 13> 가정에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영어학습 방법 (N=194)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단어와 문장말하기 등을 강조한다.	43	22.2
숙제만을 강조한다.	59	30.4
흥미유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54	27.8
집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38	19.6

<표 14>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 영어공부의 도움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으로, 가정에서 자녀 영어공부를 ‘도와준다.’가 109명(54.2%)으로 나타났으며, ‘도와주지 않는다.’가 74명(36.8%), ‘관심 없다.’가 18명(9.0%)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영어공부를 도와주고 있었다.

<표 14>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 영어공부의 도움 여부 (N=201)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도와준다.	109	54.2
도와주지 않는다.	74	36.8
관심 없다.	18	9.0

<표 15>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자녀의 영어공부를 도와주는 시간에 대한 결과이며, ‘10분 미만’이 128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10분 이상-20분 미만’ 50명(25.3%), ‘20분 이상-30

분 미만' 15명(7.6%), '30분 이상-40분 미만' 4명(2.0%)으로 나타났다.

<표 15>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 영어공부의 도움 시간 (단위=분, N=198)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10분 미만	128	64.6
10분 이상-20분 미만	50	25.3
20분 이상-30분 미만	15	7.6
30분 이상-40분 미만	4	2.0
40분 이상	1	.5

### 5)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

<표 16>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자녀의 영어관련기관에서의 학습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는가에 대해 물어본 문항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영어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가 125명(62.2%), '물어보지 않는다.'가 62명(30.8%), '관심 없다.'가 14명(7.0%)으로 나타났다.

<표 16> 영어관련기관에서의 학습내용에 대한 질문 여부 (N=201)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물어본다.	125	62.2
물어보지 않는다.	62	30.8
관심 없다.	14	7.0

<표 17>은 자녀의 영어수준에 대한 관심을 묻은 질문내용에 대한 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아이의 흥미에만 관심을 기울임'에 91명(45.7%)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 수준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음' 70명(35.2%), '영어담당 선생님에게 아이 단계를 자주 물음' 26명(13.1%)으로 나타났다.

<표 17> 자녀의 영어수준에 대한 관심 (N=199)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아이의 흥미에만 관심을 기울임	91	45.7
다른 아이의 시험 결과/영어대회 성적 비교	12	6.0
영어 수준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음	70	35.2
영어담당 선생님에게 아이 단계를 자주 물음	26	13.1

##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어려움

###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때의 어려움

<표 18>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때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비용부담’이 148명(74.4%)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부족’ 27명(13.6%), ‘영어교육을 시킬 시간의 부족’ 15명(7.5%), ‘불만족스러운 영어교육’ 9명(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N=199)

문항내용	빈도	퍼센트(%)
비용부담	148	74.4
영어교육을 시킬 시간의 부족	15	7.5
불만족스러운 영어교육	9	4.5
정보부족	27	13.6

<표 18>에 제시되어 있는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7명을 대상으로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토로하였다.

혁재어머니: 애를 외국어 시켜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먹고, 살자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중략) 형편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학원에 못 보내요. 사실은.. (현재 남한사회에서 영어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국에 맞게 따라가야 되는데.

수영어머니: (영어교육이) 필요한데, 저는 아직 돈이 없으니까 특별히 뭐.. 학원 같은데 못 보내고. 형편이 안 되니까. 유치원(특별활동시간)에서...

(집단면담, 2013. 6. 2.)<sup>1)</sup>

영어를 배워주려면 너무 비싸고, 한 달을 배우는데 십오만 원? 이십만 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상진어머니, 개별면담, 2013. 6. 6.)

1) 본 연구에서 녹취록을 인용한 방법은 ‘집단면담’ 은 면담방법, ‘2013. 6. 2.’ 는 면담일시를 의미함.



집단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에서 영어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어교육을 만족할 만큼 충분히 시키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상진어머니는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정보력 부족으로 인하여 질 높은 영어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호소하였다.

민옥어머니: 애당초 그쪽(영어교육)에는 신경을 안 써요. 내가 가슴 아픈 게 지금처럼 머리만 좀 꺾어도 이(남한) 엄마들처럼 막..영어..어디가 영어를 잘 가르치고, 그런 걸.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우린 영어를 봐도 무슨 이야기 인지 몰라요. 계속 ‘노부영’ ‘노부영’ 하는데 왜 ‘노부영’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노래하는 영어라서 ‘노부영’이라고 (중략) 다 (남한에서 선생님이) 배와주는 줄 알았지.

혁재어머니: 한국 엄마들이 강남, 목동 그런 데를 선호하고 영어학원도 저 멀리로 보내고.. 왜 저렇게 하지? 이 코앞에... 애들도 힘들지 않게 보내면 되는데 (영어학원 정보를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해커스? 신촌 이름 있는데서 배와주는게 벌써 다른 거예요.

(집단면담, 2013. 6. 2.)

(영어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학원도 또 뭐 높은 학원 있고 수준 낮은 학원이 있더라고요. 학원도 선택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종합과목 있잖아요. 국어, 수학, 역사? 모르니깐 그 걸 보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어면 영어 중점적으로 배와주는 학원을 해야 된대요.

(혁재어머니, 개별면담. 2013. 6. 8.)

집단면담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영어학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이들 자녀들이 영어교육의 출발선상이 다르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민옥어머니의 사례를 통하여 남한은 어머니의 교육열이 강조되는 반면, 북한은 유아교육기관의 선생님인 교양원의 교육지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의 이질성을 엿볼 수 있었다. 혁재어머니는 첫째 자녀인 철이(가명/현재 만 16세)의 양육경험을 통하여 남한사회의 사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철이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한사회에서 영어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하면서 처음 영어학원을 선택할 때 남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좋은 학원과 그렇지 못한 학원, 그리고 내 자녀에게 필요한 영어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토로하였다. 그래서 핵재어머니는 핵재 만큼은 좋은 영어학원에 보내고 싶어 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영어공부를 시킬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살아요. 저소득? 그건데.. 자는 시간도 없는데, 내가 모르는 영어를 가르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말하면 애도 힘들어 하고, 짜증만 내지. 암만 물어봐. 내가 아나...북에서 안 배웠는데..

(핵재어머니, 개별면담, 2013. 5. 26.)

그러니까 북한이탈XX에서 배와주는.. 유치원 애들 배와주는게 있었어요. 그때 한 과목 더 첨가해서 영어를 두 달 배웠는데.. 도저히 나도 못 따라가고 (돈을 벌어야 우리 가족이 사니) 나도 바쁘다 보니까 너무 영어를 모르고 하니까..

(재욱어머니, 개별면담, 2013. 6. 6.)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은 저소득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회에서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나마 받는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용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을 언젠가는 그만두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자녀의 영어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앞의 면담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 때문이며, 영어교육은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에 받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렵고,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하였다. 재욱어머니 역시 영어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바쁜 일과 안에서 자녀와 함께 영어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교육 방식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

민욱어머니: 어린이집에 가면 다 배와지는 줄 알았어. 근데 영어 테이프 틀어놓고 듣게 하고 딱 건 안 해. (중략)애한테 ‘뭘 배웠어?’ 애가 ‘(영어)노래했어’ 환장하는 거지.

수영어머니: 유치원에서 실제 영어를 배워진다는 게 시간 채우고 온다니까. 학원처럼 딱 열의가 없어.

(집단면담, 2013. 6. 2.)

한국에 와서 영어교육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컴퓨터 켜 놓고 한번 흘러가는 식으로, 그게 다라고 하니까. 우리 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략) 애가 스트레스 받고서는 울더라고요.

(재육어머니, 개별면담, 2013. 6. 6.)

민육어머니는 자녀의 영어교육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지면 자녀의 영어습득이 더 빠를 것이라 여겼지만, 막상 어린이집에서 노래 활동을 통해서만 영어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수영어머니 역시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은 학원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재육어머니는 남한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남한에서는 영어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했지만 낮은 환경과 언어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녀가 남한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

##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한 달 영어교육비용 및 부담감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의 한 달 영어교육으로 지불하는 비용과 이에 대한 부담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아래의 <표 19>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 달 영어교육 비용은 '3만원 미만'이 71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54명(28.1%), '국가전액지원' 36명(18.8%), '5만원 이상-10만원미만' 18명(9.4%), '10만원 이상' 13명(6.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에게 가계에 주는 부담감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어느 정도 부담이 됨'이 102명(53.1%)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됨' 39명(20.3%),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음' 37명(19.3%),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 14명(7.3%)으로 나타나 대체로 영어교육을 위한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자녀의 한 달 영어교육 비용 및 가계에 주는 부담감 (N=192)

한 달 비용	빈도	퍼센트(%)	부담감	빈도	퍼센트(%)
국가전액지원	36	18.8	매우 큰 부담이 됨	39	20.3
3만원 미만	71	37.0	어느 정도 부담이 됨	102	53.1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54	28.1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음	37	19.3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8	9.4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	14	7.3
10만원 이상	13	6.8			

<표 19>에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한 달 영어교육 비용 및 가계에 주는 부담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7명을 대상으로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한 달 영어교육 비용은 국가전액지원 또는 3만원 미만이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아보면, 북한사람들 자식은 공짜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북한사람들끼리는 잘 안 만나. 말투도 그래서.. 남한 엄마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구. (북한) 엄마들끼리 안 모이니 이런 정보도 모르는 거야. (중략) A구에 OO센터 이런 데가 있거든. 운 좋으면 공짜로 애들 영어 공부 시킬 수 있다니까.

(준이어머니, 개별면담, 2013. 5. 20.)

북한이탈XX에서 배워주는 그건 비용이 삼만 원 정도인가 났어요. (중략) (영어교육을 위한 보조금으로) 도와주면 좋죠. 우리한테는 큰돈이거든요.

(재욱어머니, 개별면담, 2013. 6. 6.)

남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준이어머니는 남한에 정착한지 15년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 이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욱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수업을 자녀에게 받게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국비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의 영어교육비용이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하였다.

(영어교육을) 배와주기 힘들어요. 문화센터 이런데 가면 수영, 학습지, 공부는 내가 선택해서 배와줄 수 있는데.... 영어는 경쟁도 많고, (북한이탈주민관련 기관에서) 추천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중략) 영어교육을 따로 돈 주고 배와준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지 않겠어요?

(상진어머니, 개별면담, 2013. 5. 23.)

우리가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어학원도 보내죠. 학습지도 시키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나는 애 공부시키려고 미용실도 다니는데, (중략) 이거(일을 다닌다는 것을)알게 되면 (국가 보조금이 끊어지기 때문에) 애가 문화센터를 못 다녀요. 쉬쉬하면서 몰래 일하죠.

(혁재어머니, 개별면담, 2013. 5. 20.)

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영어교육이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적 혜택이 많은 편이지만,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지원이 많지 않으며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하였다. 혁재어머니는 자녀의 영어교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으로 미용실에서 보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를 국가에서 알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몰래 일을 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혁재어머니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의 영어교육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솔직히 안 시키고 싶죠. 그런데 내 새끼만 안 시키면 왕따 당할까봐 시키죠. 처음에는 안 시켰죠. 우리 북조선에서는 영어가 쓸모가 없었거든요. 수영이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 수영이만 (영어)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구.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나. 애가 그냥 이리저리 빙빙 돈다는 거야. 그 말 듣고 당장 시켰죠. (중략)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야. 애 아빠는 집에만 있는데, 남조선은 다 공짜다 나라에서 시켜준다 하는데, 영어는 안 시켜주는 거야. 이것도 돈 내라 하고, (남한의 유치원에서) 저것도 돈 내라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수영어머니, 개별면담, 2013. 6. 13.)

수영어머니는 남한사회에 정착한지 3년밖에 되지 않는데, 남한의 또래 유아들이 모두 영어교육을 받는 것을 보고, 혹시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내 아이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어교육을 어쩔 수 없이 시킨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녀의 영어교육이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주 1회에서 주 5회까지 받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로 노래 부르기과 회화가 유아기 자녀에게 적절한 영어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배운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녀의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의 영어교육 비용이 큰 부담이 되며,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질 좋은 영어 수업을 받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에게 맞는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영어교육 실태와 어려움을 알아보는 데 연구목적 을 두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만 3세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동기로는 같은 또래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한 유아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실시 및 동기에 대한 노승희(2008)의 연구에서도 ‘같은 또래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아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영어실력은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이정원, 박희선, 2010; 정새론, 임현우, 2009)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도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자녀들은 겪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영어교육기관의 유형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영어교육 경험을 유아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었다. 노승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경기도 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남한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 실태를 알아본 결과, 국공립 유치원의 재원 아는 100% 영어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사립 유치원도 50%의 유아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경향을 띠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의 영어교육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할 때의 적절한 교육 방법이 노래와 대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활용한 영어교육방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의 활용이 이들의 억양과 말투, 자녀와의 교육적 상호작용과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남한 아이들과 같은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자녀와 하루에 10분미만으로 영어교육과 관련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영어교육지도 방법으로는 배운 내용을 아이 혼자 해보라고 시켜보는 등 숙제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영어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이숙자(2001)와 박혜영(2008)의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영어와 같이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한 교육에 대해서는 남한의 교육기관에 의존하기 때문이거나(조혜영, 권정윤, 2013) 어머니들 스스로가 영어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영어교육에 관심은 있었으나 주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자신들이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의 흥미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어머니들과 북한 어머니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의견의 대립은 영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교육방식(이루지, 2007; 이소영, 2012)과 문화 차이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 부족, 영어교육을 시킬 시간의 부족, 불만족스러운 영어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50%이상은 자녀의 한 달 영어교육 비용을 3만원 미만으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남한 어머니들이 유아기 자녀의 가정과 학원에서의 한 달 영어교육비가 5만원 미만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결과(천희영 외, 2011)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이러한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저소득 가정이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용은 이들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한 어머니들 역시 자녀의 영어교육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였는데(우남희, 2004; 이숙자, 2001), 특히, 우남희(2004)는 생후 1개월의 영아에게도 영어교육을 시키고, 종류도 다양화되는 등 영어교육이 가계에 주는 경제적 부담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자녀들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센터, 협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하여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센터나 문화센터 등에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부모의 거주기간이 길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우로 국한되어있어 정보의 통로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효과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위한 영어교육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열의는 남한 어머니들 못지않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목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이들이 바라는 자녀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미래에 대한 관심, 그리고 희망은 남한 어머니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영어 사용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오사라, 2008; 정경일, 2002), 북한과 달리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생활하면서 자녀에 대한 영어교육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새론, 임현우, 2009).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조기영어교육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낯섬, 두려움 등에 대해 부모교육을 통해 인식을 재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아기에는 발달과업에 알맞은 적기성교육으로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이경호, 김익균, 2007;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3), 도덕과 예절 등의 인성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다(문용린, 2013).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통하여 이들의 발달이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어보다 모국어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 이들이 적절한 언어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영어교육을 돕는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 영어교육 실태와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들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1. 22). 초등학교 영어교육 10년. '효과 있었다'. **교육소식**. 출력일 2013년 5월 23일.
- 김경철, 홍정선(2002).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어린이미디어연구**, 1, 33-51.
- 김미정, 이경남(2011).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53-271.
- 김민진(2012).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유아의 사회언어학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회지**, 16(5), 459-486.
- 김연희(2009). 영어유치원과 한국어 유치원 7세 유아의 영어 학습 흥미도 분석 및 영어학습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기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아(1995). 유아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와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조혜주, 김경미(2010). **유치원 특별활동 운영 실태 보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09-4.
- 남은주(2009). 남. 북한 영어교육실태 비교 연구: 남. 북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승희(2008).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라명희(2008). 영어유치원과 일반유치원 유아의 영어 학습 흥미도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마송희(2008). 유아교육기관 영어교육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실천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21-245.
- 문용린(2013). 서울특별시 문용린 교육감을 만나다: 올바른 도덕·인성교육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부터. **사단법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소식 제 5호**.
- 박성재, 김화순, 성재민, 반정호, 김선경(2011).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통일부.
- 박약우, 김진철, 고경석, 박기화, 정국진(2000). 남북한 중등학교 영어과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외국어교육**, 7(2), 163-194.

- 박혜영(2008).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초등학생 학부모와 중학생 학부모의 인식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문희, 최진, 이정림, 최혜선, 조성연, 권영인(2011). **보육시설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유아정책개발센터.
- 서울특별시(2006).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전략보고서**. <http://spp.seoul.go.kr> 출력일 2013년 5월 22일.
- 송정, 양정선, 차성현, 정연주(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30.
- 안은숙, 김연하(2009).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영어교육/이중언어발달 관련 논문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1), 81-101.
- 양옥승, 김진영, 김현희, 김영실(2001). 한국 사립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22(4), 299-313.
- 오사라(2008). 대안학교 새터민 청소년의 영어교육 현황 조사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남희(2004).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아동권리연구**, 8(2), 189-207.
- 우남희(2007).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53-474.
- 이경호, 김익균(2007). 아동발달과 조기영어 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1(2), 1-20.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3).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혁신. **이화교육총서**, 2003(2), 1-107.
- 이루지(2007).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영어교과서 비교·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화(2011).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유치원 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특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영(2012). 북한 영어 교과서 분석: 중학교 4, 5, 6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자(2001). 가정에서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41-63.
- 이윤진, 이정림, 김경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유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2-14.
- 이정원, 박희선(2010). 한국인 영어교사의 효과적인 TEE 방안 연구. **Secondary English Education**, 3(2), 3-23.

- 정경일(2002).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실태. **사회언어학**, 10(1), 253-274.
- 정세론, 임현우(2009). 북한이탈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에서의 영어 학습. **중등교육연구**, 57(3), 85-111.
- 조미영, 이문옥(2009). 유아기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인식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57, 23-51.
- 조영아, 전우택(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1), 17-35.
- 조혜영, 권정윤(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에 대한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67-89.
- 천희영, 서현아, 좌승화, 배미숙(2011). 영아영어교육 실태 및 영아어머니의 영아영어교육 요구에의 영향 변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43-65.
- 최대현, 이인수, 김현아(2007). 새터민 아동, 청소년의 적응력향상을 위한 부모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6(2), 277-291.
- 최신영(2002). 효과적인 지도방법으로서 노래와 챗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숙(2008). 남·북한 유아교육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유아교육제도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일부(2013a). 북한이탈주민정책: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http://www.unikorea.go.kr> 출력일 2013년 7월 18일.
- 통일부(2013b). **2013 통일백서**. 통일부.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3). **2013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 홍주은(2003). 북·한이탈부모의 자녀양육 변화와 문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Creswell, J. W. 2<sup>th</sup> Ed. (2012).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원판 2007).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ABSTRACT

The research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and difficulties of Englis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1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f 3-5-year-old children. They were surveyed and some of them were interviewed on their children's English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in this study provided their children with English education since their children were 3 years old. The major reason for the English education was their children's peer group who received English education early in their lives. Their educational interaction periods with their children were less than 10 minutes, and they had their young children study English alone, focusing solely on their assignment. Next,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claimed that the biggest difficulties for teaching English to their children were cost, lack of information, lack of time to teach English, and unsatisfactory English education. They expressed that the cost for English education was a burden on the family to some extent.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realities and difficulties of englis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논문투고 2013. 08. 11.  
수정원고접수 2013. 09. 29.  
최종게재결정 2013. 10. 17.